

소 한마리 키울때마다 150만원 손해

구제역후 인건비·사료값 등 생산비 급등

돼지는 소비 늘고 가격 올라 14만원 순익

지난해 사료 값은 크게 올랐지만 소 값은 떨어져 한우나 육우 등 소는 한 마리 키울 때 마다 100만~150만원 가량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돼지는 구제역 이후 값이 크게 올라 마리당 14만원 정도 순이익을 얻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11년 축산물 생산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송아지 생산비는 마리당 306만원으로 전년 대비 13.7% 증가했으며 한우(비육우)는 600kg당 569만원으로 1년 사이 9.9% 늘었다. 또 우유(12.0%), 고기용 돼지인 비

육돈(22.0%), 계란(11.9%), 육계(2.7%) 등 모든 축산물의 생산비가 전년보다 올랐다. 생산비에는 가축 구입비용, 사료비, 인건비, 자본이자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사료 값도 오른데다 구제역 발생 등으로 인한 비용이 늘면서 축산물 생산비가 큰 폭으로 뛰었기 때문이다. 특히 소 값 하락으로 한우 농가의 손실이 컸다. 작년 육우 경락가격은 지육 1kg당 7317원으로 전년 대비 25%나 떨어지면서 마리당 150만6000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 25만1000원에서 적자폭이 크게 증가했다. 한우 번식우(송아지)도 암송아지 산지 가격이 2010년 217만4000원에서 지난해 144만9000원으로 33%나 하락하면서, 마리당 107만1000원 적자를, 한우 비육우도 마리당 116만6000원 적자를 보였다.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는 원유 가격 상승으로 조수입이 늘면서 지난해 마리당 150만8000원의 수익이 났다. 하지만 2010년(180만원)에 비하면 수익이 20%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반면 돼지고기는 구제역으로 지난

해 kg당 가격이 5894원으로 전년(4007원)보다 47%나 급등하면서 사육비 증가에도 순수익(14만3000원)이 3배 이상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국제 곡물 가격이 오르면서 사료값이 크게 오른데다 인건비까지 올라 축산물 생산비용이 대부분은 크게 증가했다"며 "소 값이 떨어지면서 한우사육 농가는 이득이 없었지만 돼지사육 농가는 구제역 등의 요인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면서 생산비 증가를 상쇄해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경상수지 3개월 연속 흑자

수출은 둔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3개월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은 2012년 4월 중 경상수지가 17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월 9억7천만달러 적자였던 경상수지는 2월(5억6000만달러 흑자)과 3월(29억7000만달러 흑자)에 이어 3개월 연속으로 흑자다. 올해 들어 4월까지 경상수지는 모두 43억4000만달러 흑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8억9000만달러보다 다소 확대됐다. 한은 관계자는 "자중차 수출 호조,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배당 등 대외 지급 축소 등에 힘입어 5월 국제수지도 흑자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상품수지는 4월 18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전월(29억3000만달러 흑자)보다는 흑자규모가 줄었다. 석유제품, 반도체 등의 수출이 둔화했기 때문이다. 수출규모는 3월 473억8000만달러

에서 4월 458억8000만달러로 다소 줄었다. 유럽의 재정위기가 지속하면서 유럽연합(EU) 수출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입은 4월 440억9000만달러로 3월(444억5000만달러)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서비스수지는 운송 및 여행수지가 개선됐지만 건설서비스 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들어 흑자 규모가 지난해 7억달러에서 4월에는 5억5000만달러로 축소됐다. 본원소득수지는 12월 결산법인의 대외배당 지급이 늘어나 적자 규모가 3월 3억2000만달러에서 4월 4억2000만달러로 커졌다. 이전소득수지 적자는 3월 3억4000만달러에서 4월 1억5000만달러로 줄어 들었다. 금융계정은 3월 18억6000만달러 유출에서 4월 2000만달러 유입으로 돌아섰다. 금융계정 가운데 직접투자는 국외직접투자가 둔화해 전월의 16억2000만달러에서 9억4000만달러로 축소됐다. /연합뉴스

오늘부터 스마트폰 영수증 시대

지식경제부는 스마트폰 영수증 발급시스템을 구축하고 31일부터 신세계백화점 죽전점에서 서비스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이용하려면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간편하게 전자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 사용자는 31일부터, 아이폰 보유자는 12월부터 사용할 수 있다. 근거리통신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전용 결제기에

스마트폰을 접촉해 결제와 함께 전자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영수증 제도가 정착되면 유통업체의 종이 영수증 발급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경호르몬 노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지경부는 기대했다. 유통업체 종이영수증 발급 비용은 작년 기준을 기준으로 연간 230억원이다. 지경부는 12월까지 신세계 백화점 전체 지점을 대상으로 전자영수증 서비스를 확대해 예정이다. /연합뉴스



'장인의 손길' 수제 보드카 출시 페르노리카 코리아가 3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슈퍼 프리미엄 보드카 '엡솔루트 엘릭스' 출시를 알리는 행사를 하고 있다. '엡솔루트 엘릭스'는 최상급 겨울밀과 장인의 손길을 거쳐 만들어진 수제 보드카로 가격은 6만원이다. /연합뉴스

광은, 소외이웃과 사랑나눔

복지시설 20곳에 라면 200박스

KJB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30일 오전 (주)팔도 나주공장 준공식에서 기념 라면 200박스를 구매해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등 'KJB 사랑센터' 20곳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이날 오후 북구 오치동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 '(사) 퇴출복지재단(대표 안병규)'와 서구 금호동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 '엡마우스윌터(대표 김명선)'를 'KJB 사랑센터 18호점 및 19호점'으로 선정하고 선정식과 후원기념 행사를 가졌다. 후원행사

에서 광주은행은 'KJB 사랑센터' 선정을 기념해 지원금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31일에는 광산구 신창동 소재 노인 복지시설인 '바라말살바하우스'를 'KJB 사랑센터 20호점'으로 선정, 후원 기념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송기진 행장은 "KJB 사랑센터를 2014년까지 140여개로 늘리는 '1부점 1센터' 전략을 추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은행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제조업 비중 22년만에 50% 돌파

경제규모가 커진데 힘입어 2010년 우리나라의 재화·서비스 총공급액이 전년보다 무려 13% 이상 늘어났다. 특히 산업구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8년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 상승과 자동화·기계화 추세 탓에 생산유발 및 취업유발 효과는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총공급액 대폭 증가 =한국은행이 30일 내놓은 '2010년 산업연관표'를 보면 2010년 우리나라의 재화 및 서비스의 총공급액은 3733조 1000억원으로 2009년에 비해 13.6%

나 늘었다. 총공급액은 국내 전체 산출액에 수입을 더한 것으로 전체 경제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로 사용된다. 반면에 2009년의 총공급액은 3286조7000억원으로 2008년(3320조3000억원)보다 1.0% 줄었다. 이는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금융위기의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제조업 비중 1988년 이후 처음으로 50% 넘어 =산출액을 기준으로 산업구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47.7%에서 2010년 50.2%로 올랐다. 제조업 비중은 1980년 51.

0%에서 1988년 52.7%까지 올랐다가 1990년 49.6%로 낮아지고서 줄곧 40% 후반대에 머물렀다. 22년 만에 50%대를 회복한 것이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석유제품과 1차 금속제품, 화학제품의 가격이 오름에 따라 제조업 가운데 기초소재업종의 비중이 20.6%에서 22.0%로 확대됐다. 특히 조립가공업종에 속하는 반도체, 전자표시장치, 자동차의 산출액이 각각 49.9%, 29.0%, 26.8% 늘어나 제조업의 비중 확대에 기여했다. /연합뉴스

바른세금 지킴이 732명 뜬다

시민 탈세감시단 출범

국세청 시민 탈세감시단인 '바른세금 지킴이'가 30일 정식 출범해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바른생활 지킴이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원한 각계각층의 시민 중 전문성을 갖추고 성숙한 납세문화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732명의 서포터즈로 구성됐다. 이들은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개별기업의 구체적인 세금탈루 행위를 국세청에 제보하고 업종별,

지역별 세원동향 정보와 국제행정에 대한 참신한 의견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서포터즈의 활동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들이 제출한 건설적인 대안을 정책과 국제행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바른세금 지킴이의 출범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탈세수법이 날로 다양화·고도화되면서 수동적으로 받았던 기존의 탈세정보로는 고질적인 탈세 행위를 방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세무서 조선대서 현금영수증 홍보

광주세무서(서장 이민수)는 지난 25일 시작된 제10회 조선대학교 장미축제 현장에서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홍보활동을 펼쳤다. 30일 이민수 서장을 비롯한 광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직원들은 조선대학교 장미축제 현장을 찾아 행사장

입구에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축제에 참여한 대학생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용 형광펜과 메모지 등을 나눠주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참여와 현금영수증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일보 창사60주년 since 1952

57 호남예술제

새싹그리기 축제

1. 개요: 작품공모

- 대상: 전국 미취학 어린이
- 시상: 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
- 기간: 2012년 6월 11일(월) ~ 6월 15일(금)
- 결과발표: 2012년 6월 26일(화), 호남예술제 홈페이지(http://art.kjmedia.co.kr)에 발표
- 작품크기: 8절(개인 용지 사용가능)

2. 참가

- 참가비: 7,000원 (20명 이상 단체할인 4,000원) * 단체는 접수 전 연락바랍니다. (062-220-0541)
- 접수처: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 새싹그리기 축제 담당자 앞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 우편번호 501-711

3. 유의사항

- 출품된 모든 작품의 판권 및 저작권은 광주일보사에 귀속되며 반환하지 않음
- 우편접수 시 작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상태에 유의하시기 바람
- 본인의 작품이 아니거나 심사대상에 결격 사유가 인정될 시 시상에서 제외됨
- 공지내역 외 사항은 일반적인 대회요강에 준함

주최 | **광주일보사**

협찬 | **SAMSUNG 삼성생명**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호남예술제 홈페이지 <http://art.kjmedia.co.kr>